



[부속가]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취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뉘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음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빵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제1독서].....신명 8,2-3.14ㄴ-16ㄱ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ㄴ
 (© 12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2독서]..... 1코린 10,16-1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51-5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1,2절)
 • 봉헌성가: [221] 받아 주소서

• 성체성가: [179] 주의 사랑 전하리
 • 파견성가: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3,4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⁵²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⁵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⁵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⁵⁷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⁵⁸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복음 묵상

사제가 되어 처음으로 어버이날 아침에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신학교에서 전화로만 축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직접 뵙고서 선물과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신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침 먹었니? 밥 차려 줄까?” 평소에도 부모님 댁에 가면 부모님께서 차려 주신 밥을 먹고는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내리사랑을 그대로 받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밥을 차려 드려도 부족할 텐데 어버이날마저도 여전히 밥을 차려 주시려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면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 해를 외국에서 지낼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칠순 가까이 되신 어머니께서 주민 센터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고 이메일 계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내신 이메일에는 어김없이 먹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좀 먹니?” “생일인데 미역국은 누가 끓여 주니?” “살이 너무 빠지지지는 않았니?”

이렇게 자식이 잘 먹고 지내는지 늘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느님께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십니다. 단순한 음식,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을 걱정하시어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사랑의 양식을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날이다. 이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한다.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내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사목적 배려로 주일로 옮겼다. 그리스도의 성체 축일과 성혈 축일이 따로 있었으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함께 지내 오고 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대화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의 개인적인 역사의
하느님, 곧 “나의 하느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갑자기 울리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여정을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새로운 미래, 색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조국에서 떠나고, 자기 가족의
부리에서 떠나라고 부추기는 목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직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신앙 선조인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 논리에 따르면 그가 다른 신들을
숭배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늘과 별들을 관찰하는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만큼이나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출발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앙
선조인 아브라함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의
위대한 영적 전통 안에서, 완벽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또한
자신의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 지라도
하느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은 그 말씀의 수용자가 되고, 인간의 삶은
말씀이 육화되기를 요구하는 곳이 됩니다. 이는 인간의 신앙
여정 안에서의 크나큰 새로움입니다. 믿는 이의 삶은 소명,
곧 부르심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에서 단순히
불가사의함의 무게로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믿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히브 11,8
참조).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여정에 주기적으로 나타난 하느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은 역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삶과 모범을 통해 믿음이 역사가 되는 이
여정을,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존재처럼 우주 현상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의
개인적인 역사의 하느님, 곧 **“나의 하느님”**이 됩니다. 나의
일상의 하느님, 나의 모험의 동반자, 섭리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나의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나의 개인적인 역사의
하느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 나의 일상의 하느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 체험은 또한 영성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텍스트 중 하나인 블레즈 파스칼의 저서 『회고록』(Memoriale)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저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느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감성,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이 회고록은 파스칼이 작은 양피지에 써서 윗옷 안쪽에 붙이고 다녔으며, 파스칼이 죽은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파스칼 자신과 같은 학자가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지성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고 풍부한 체험을 일으킨 하느님 현존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그와 같은 현실을 느끼고, 마침내 그 현실을 체험한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1654년 11월 23일 저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 부르심의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요셉의 하느님, 확실하신 하느님, 감성의 하느님, 기쁨의 하느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먼저 행동으로 표현된다. 말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는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70항). 아브라함은 성전을 짓지 않고, 하느님의 지나가심을 기억하는 돌의 길을 흠뻑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세 손님의 모습으로 그를 방문하여 아들 이사악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가 아내 사라와 함께 친절하게 맞이했던 놀라우신 하느님이십니다(창세 18,1-15 참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 살이었고, 그의 아내는 구십 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잉태했습니다. 그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논쟁할 수도 있었지만, 항상 하느님께 충실했습니다. 하느님과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 이사악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하는 최고의 시련을 받을 때까지 충실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별빛 없는 하늘 아래에서 손을 더듬어 가며 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극적인 믿음**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걷는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순응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사악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창세 22,1-19 참조).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웁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고, 토론에 이르도록 대화합시다. 우리는 하느님과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단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사람들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에게 화를 낼 용기가 있습니까?”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만이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 있고,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되,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웁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토론하는 것을 배웁시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솔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고맙습니다.


2020. 6. 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9일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봉헌(미사 전, 후)
가톨릭 기도서 109면, 매일미사 191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6월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

매년 6월은 한국 천주교회 구성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며,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한반도가 6·25 전쟁 정전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평화체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올해도 담화문 발표와 함께 아래와 같이 **9일 기도**를 바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9일 기도

- **기간** : 2020년 6월 17일(수)~25일(목)
- **방법** : 미사 전 · 후 기도문 함께 봉헌
- **기도문**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면 / 매일미사 191면)

지향

- 6월 17일(수)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 6월 18일(목) -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월 19일(금) -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 6월 20일(토) -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6월 21일(일) -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 6월 22일(월) -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 6월 23일(화) -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 6월 24일(수) -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 6월 25일(목) -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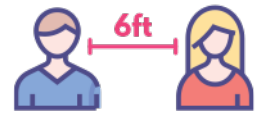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시범으로 운영하는 미사를 통해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 (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18일(목) 오후 5:00-6:00

6월 19일(금) 저녁 8:00-9:00

6월 21일(일) 오전 6:00-7:00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삶 꺼안기 1부**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6월 17일(수) 오전 6:15-6:45 | 6월 18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12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9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부터 시작하여 점차 퍼지면서 보편화되었다. 1856년 비오 9세 교황 때 교회의 전례력에 도입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